호세아서 소개

마크 래버튼(Mark Labberton) 박사는 호세아서를 소개합니다. 매춘부와 결혼하는 선지자라는 극적인 은유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묘사하는지 설명합니다.

저는 마크 래버튼(Mark Labberton) 박사입니다. 저는 풀러신학대학원의 총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호세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는 기원전 8 세기의 소선지서 중 하나입니다. 성경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상당히 특이한 책입니다. 호세아서가 매우 특이한 이유는 이 책의 핵심이 일종의 은유라는 점입니다. 극적인 은유, 일종의 외설적이고, 놀랍고, 혼란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성경에서 묘사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떠나 크게 음란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는 다른 선지서들처럼 눈에 띄고 강력하기도 하지만, 매우 다른 감정적, 정신적, 사회적 공간을 묘사합니다. 예언의 부르심과 자신의 고통이 동일시 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충실한 행동은 가장 비직관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똑같은 예를 반복하게 될 자식을 낳는 것은 가장 믿음이 없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원하는 은유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얼마나 큰 불협화음인가? 의롭고 거룩한 내가 너희와 같이--믿음이 없고 음란한 백성과 동일시되다니!"

정말로 비범한 이미지입니다. 성경 전체의 다른 부분과 비교됩니다. 이 이미지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특이한 예가 더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가져 오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호세아의 믿음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만한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점은 바로 그 관계, 즉 호세아와 그의 아내의 관계가, 이스라엘과 야훼 사이의 관계가 파탄이 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같이 도전적인 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슬픔에 찬 말, 한탄하는 말, 이스라엘이 얼마나 배신하고 불성실했는지를 생생히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응에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그의 결혼에 대한 징조적인 예를 통해 그 배신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놀라운 묘사입니다. 한편으로 호세아서는 전체적으로 마치 판단과 한탄과 도전의 책, 이유없는 질책의 책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부드러움과 용서의 가닥이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외한 그 누구 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빼고는요. 야훼는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이지 이웃의 목소리도, 경쟁자의 목소리도, 다른 신들의 목소리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충실해야 하는 것은 야훼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정한 책임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 측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의 희망은 진리와 정의와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놀라운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약속한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심판을 받을 만하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희망입니다.